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4, 2023

논 문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UCCN 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심으로
남기범

도시 문화생태계에 대한 유럽의 관점
실비아 아만

우리의 실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역문화 거버넌스 ‘공유성복원탁회의’라는 실험
권경우

문화생태계 조성: 2019 유럽 문화 수도 마테라의 경험
로젤라 타란티노

문화생태계의 활성화와 지역 국립 박물관의 역할
장상훈

문화적 권리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
“문화21 플러스”
마르타 요베트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UCCN 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심으로*

남기범**

초 록

이 논문은 문화 창작자, 유통업자, 배포자, 미학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의 교환 등 문화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특성에 특히 중점을 두고 문화 생태계의 개념을 논의한다. 그것은 특히 지역 혹은 지방의 생태계의 맥락에서 그러한 생태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발전 궤적과 그것의 창의적인 도시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개괄한다. 그것은 또한 지역 문화예술의 리더십과 거버넌스 시스템의 역할을 탐구한다. 그것은 상호관계를 증진하고 각 생태계 구성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다양한 공동체 내에서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장소-기반의 지역 문화 생태계 개념을 소개한다. 경제적 자원, 제도적 네트워크, 문화 인프라 등 지역 주민과 정책 입안자의 관점에서 문화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논의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문화생태계 강화를 위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프로그램 활용에 대해 탐구한다. UCCN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도시 간 협력을 촉진하며, 도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이 논문은 문화 주도의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육성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5중 나선구조(Quintuple Helix) 이론을 언급하면서, 문화가 풍부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장기 실행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결론을 내린다.

키워드: 문화생태계, 장소-기반 지역 문화생태계, UCCN,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 이 논문은 2023년 7월 7일 진주에서 개최된 제 8차 진주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포럼에서 발표되었다.

** 남기범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이다. 그는 사스캐추언 대학교에서 지리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한국경제지리학회 회장과 한국산업클러스터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연구의 관심은 도시 문화 정책, 사회 혁신, 도시 재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메일: nahm@uos.ac.kr.

1. 서론

문화 생태계의 개념은 생태계 기능의 구성 요소와 특성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Spencer 1857). 또한 문화 창작자, 배포자, 참여자 간의 미학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의 교류와 활용도 포함한다. 문화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화 기관, 중개자, 지역 또는 지방 문화 생태계의 고유한 속성을 고려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균형 잡힌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속성들에는 사람, 장소 및 조직이라는 세 가지 주요 측면이 포함된다.

- (1) 사람 : 문화 종사자, 후원자, 지역 참여자로 구성됨
- (2) 장소 : 문화 유적지 및 커뮤니티와 같은 문화활동의 물질적 기반을 표현함
- (3) 단체 : 예술 및 비영리 단체, 문화 산업, 공공 예술, 그리고 중개자 등과 같은 문화활동에 포함된 주체를 포괄함

이 논문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발전 궤적, 지역예술과 문화 생태계, 그리고 창의도시 프로그램의 공진화 과정,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거버넌스 시스템을 탐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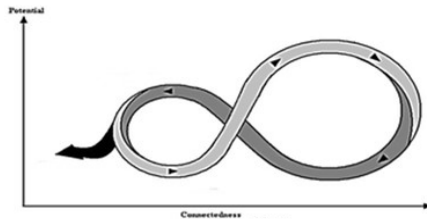
2. 정의: “생태계”와 “문화 생태계”

2.1. 생태계

생태계에 대한 스펜서(Spencer)에 따르면, “유기체적 진보의 법칙은 모든 진보의 법칙이다. 지구의 발달이든, 지구 표면에서의 생명의 발전이든, 사회, 정부, 제조업, 상업, 언어, 문학, 과학, 예술의 발전이든 간에, 연속적인 분화를 통해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동일한 진화가 지속된다.”(Spencer 1857, 234) 일반 생태계는 다음을 포함하는 4가지 진화의 국면을 갖는다. 1) 착취: 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을 포획하는 교란된 생태계의 식민지화. 그것은 카오스적인 시스템 속에서 질서를 확립하는 일의 시작이다. 2) 보존: 안정성, 견고성, 강력한 상호의존성; 3) 방출: 창조적 파괴 국면을 촉진하는 계기. 일부 외부 교란으로 인해 생태계의 견고하게 연결된 구조가 풀리고 대량의 저장된 자본과 에너지가 방출됨. 4) 재구성: 구조 조정, 가장 높은 불확실성, 새로운 질서가 시작됨(Auerswald 및 Dani 2018).

4. 재구성
- 저장된 영양분의 방출이 새로운 도입
 - 국면 특성: 재구조화
 - 높은 불확실성: 새로운 질서

2. 보존
- “정점” 혹은 평형 국면
 - 성장에서 시스템 안정으로 자원 활용의 변화
 - 국면 특성: 안정성, 견고함, 강력한 상호의존, 교란에 대한 취약성



1. 착취
- 자원에 대한 높은 경쟁
 - 증가하는 다양성으로부터 새로운 계기
 - 국면 특성: 개척, 기회, 혁신, 불확실성

3. 방출
- 창조적 파괴의 국면
 - 저장된 양분을 방출하는 시스템의 붕괴
 - 국면 특성: 불확실성, 카오스, 교란, 불안정성

그림 1. 생태계의 순환
출처: Auerswald and Dani (2018)

2.2. 문화 생태계

문화 생태계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특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미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의 교류, 활용, 창작에 중점을 둔다. 문화 기관과 중개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문화예술은 소비자들 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촉진되는 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는 문화 제품과 예술 제품을 차별화한다. 한 지방 내의 문화기관들이 생태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인류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

문화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생산자는 양적으로 유통자보다 비율이 높아야 하며, 총 참가자 수가 문화 생산자의 수보다 많을 때, 원만한 순환구조가 보장된다. 문화 생산자의 상호성은 확보되어야 하지만, 각 단계에는 라운드 자격과 상태가 있다. 독립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하부구조에서는 유기적인 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개별 조직이 태어나는 하나의 생태계는 성장하고, 변성하고, 사라지며, 그것들을 제약하거나 유지하는 문맥적인 요소들을 조사한다.(McGill, et al.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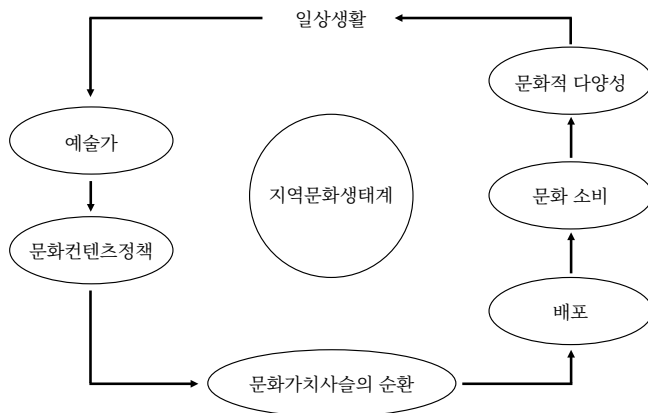


그림 2. 문화생태계의 개념모델
출처 : 충북연구원(2012)에서 발췌.

하나의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환구조의 확립이다. 순환구조란 에너지의 순환적 흐름을 의미하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1차 생산자의 존재이며, 이들의 생산활동은 생태계 전체의 에너지 순환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한다. 생태계 내 각 그룹 간의 상호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상호성은 평등을 바탕으로만 달성될 수 있으므로 1차, 2차, 3차 생산자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화와 발전은 모든 인구의 조화로운 평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덜 경쟁적이거나 비경쟁적인 환경에서는 발전의 시작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상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내면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 각 주체의 능력은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생태계의 건강성은 특정 인구의 비정상적 성장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의 경쟁력을 통해 발현되며, 그러한 환경에서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Ivanova and Zhang 2022).

2.3. 장소-기반 지역 문화 생태계

“문화예술 생태학은 다양한 커뮤니티에 포함된 문화예술 창작자, 제작자, 발표자, 후원자, 참가자 및 보조자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40년 전, 과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식물, 동물, 광물, 기후, 우주를 끝없이 분류할 수 있는 별개의 현상으로 다루는 것이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이해하거나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 생태학이라는 통합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예술 생산자, 옹호자,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 전체성과 상호 연결성의 관점을 키워서 문화예술 영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Markusen, et al. 2011, 8).

문화 참여를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주요 관점이 있다. 지역 주민과 정책 입안자.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문화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1) 개인의 경제적 자원 - 처분가능한 소

득,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2) 준거 집단의 자원(내 친구와 친척이 문화를 많이 사용하는가?) (3) 문화와 관련된 유형의 자원, 즉 문화 기관의 인프라



그림 3. 장소-기반 지역 문화 생태계
출처 : Markusen, et al. (2011).

(내가 사는 곳에서 문화적 분위기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반면에 정책입안자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문화 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에 할당되는 예산의 규모(문화 관련 프로젝트에 얼마를 쓸 수 있는가?); (2) 기관 네트워크 자원(문화예술 정책을 도입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민간 및 비영리 파트너가 있는가?) (3) 문화와 관련된 유형의 자원, 즉 문화 기관의 인프라(어떤 문화 기관이 우리의 문화 정책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는가?)

장소-기반 지역 문화 생태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긍정적인 미적 특성을 보유할 것; (2) 감정을 표현할 것; (3) 지적으로 도전할 것(즉, 기존의 견해와 사고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4) 형식적으로 복잡하고 일관적일 것; (5) 복잡한 의미를 전달하는 능력을 가질 것; (6) 개인의 관점을 표현할 것; (7)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것(독창성); (8) 높은 수준의 기술의 산물인 작품 또는 공연일 것 (9) 확립된 예술 형식(음악, 그림, 영화 등)에 속할 것; (10) 예술 작품을 만들려는 의도의 산물일 것; (11) 예술 전통과 제도.

3. 문화예술 리더십과 UCCN

3.1. 공공 장소를 위한 사람들

예술과 문화의 리더십은 “장소들에서의 참여와 거버넌스 실천과 루틴을 개발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장이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재정 자원은 여전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하며, 이들의 참여는 더 다양한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결국 더 복잡하고 혁신적인 참여와 협상 프로세스를 필요로 한다.”(Nemeth 2016) 지역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보다 상향식의 유연한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는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개인의 욕구가 도시 전체가 반영할 수 있는 역동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과 플랫폼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할 때, 이들이 행동할 수 있게 하고, 조직 측면에서 적당성을 실현하고,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구성은 투명하고 간결해야 한다. 소규모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파트너십이 필수적이지만 함께 행동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McGill, et al. 2014; Mulligan and Smith 2011).

공공 장소에서의 지역 문화 활동에는 4 국면이 있다.

(1) 동원: 문화적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한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식별하고 수집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는 권력-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개방성과 형평성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2) 가시화: 대부분의 작업은 회의, 토론, 로비를 통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브랜딩 및 마케팅의 공식적인 문화 프로그램에서, 가시화에는 일반적으로 시민 및 기타 이해관계자 그룹의 미디어 보도 및 지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브랜딩 및 마케팅의 공식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 가시화는 하향식 프로세스일 뿐만 아니라, 도시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 프로세스이기도 하다. 문화 프로그램은 일상의 실천과 반복을 통해 가시화된다.

(3) 민감화: 프로그램을 가시화하는 것도 긴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프로그램의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 도시 사용자들 사이에서 더 많은 청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개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1) 번역: 그 프로젝트 개념의 종종 기술적이거나 학술적인 언어를 일상적이고 접근 가능한 언어로 해석하는 것. 예를 들어, 예술가의 관점은 거주자와 방문객, 글로벌 미디어와 관련된 보편적인 주제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2) 각색: 프로그램의 내용을 청중과 대중에게 관련되고 직접 와닿는 것으로 만드는 것; 3) 공감: 프로그램의 메시지가 번역 및 각색 기술을 통해 전달되더라도 사람들이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된다.

(4) 축제화: 이벤트들은 일들이 도시에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유동적인 도시 문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소-만들기 과정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벤트들은 그것들의 도시 시스템 내에서 갖는 촉매 기능으로 말미암아 장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이벤트가 '되풀이됨으로써' 현상태에 도전하기보다는 그것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이벤트만이 물리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장소를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서' 이벤트로 볼 수 있다. 이 소수의 이벤트가 도시가 필요로 하는 이벤트 유형인 경우가 많다(Richards 및 Duif 2018).

3.2. UCCN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문화생태계의 강화

비즈니스 개발의 관점에서 창의적인 분야 인식과 평생 학습 과정까지, 그리고 축제부터 전문적이고 예술적인 교류 프로그램까지, 또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대책부터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창의성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략적 요소로 인식해 온 도시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출처: 유엔(2017)

OECD는 “17개 SDGs는 지역 및 지방 정부의 적절한 참여와 조정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OECD 2020). 17개 SDGs 모두와 169개 목표 중 다수는 지역 혹은 지방정부의 책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UCLG 2018), 각 목표에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목표가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다. SDGs는 문화 단체와 활동가, 상업적 필요성이 있는 민간 기업, 불평등과 사회 정의에 관심이 있는 지역 사회 단체 및 시민 사회 단체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의제를 가진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를 위한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집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SDGs의 채택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일부에게는 "녹색 성장" 달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다른 일부에게는 도시 불평등을 해결하는 도구 역할을 하며 시 공무원들이 다른 도시의 동료들과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3.3. UCCN 도시 브랜딩

네트워크는 도시를 브랜드화하는 데도 사용된다. 특히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서 회원도시의 이미지와 경쟁 우위가 제고되는 유네스코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회원도시가 되고, 유네스코 명칭 및 로고를 병용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관광객 유입과 투자 증가부터 도시민과 기업체의 강한 만족감과 자부심 제고까지 다양하다. UCCN 회원이 되면 '명예회장' 지정부터 다른 UCCN 도시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급속한 성장, 많은 행정 업무, 국민 국가를 다루기 위한 관료주의 등의 문제적인 측면도 있어 실제 창의적 네트워킹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UCCN은 도시의 사회 및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창의성의 활용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려면 도시는 문화 활동의 역할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이 문화 생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창의성, 혁신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지식, 모범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UCCN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도

시 브랜딩도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회원도시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권위 있는 네트워크의 회원 자격은 도시의 독특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시 브랜딩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해당 도시에 대한 언론 보도가 더 빈번해지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UCCN 멤버십과 도시 브랜딩을 통해 혜택을 지각하고, 그 도시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낀다.

2020년 로마 헌장은 다음을 강조합니다.

- (1) 문화적 뿌리를 발견하여, 자신의 유산, 도시의 정체성과 장소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맥락을 이해한다.
- (2) 문화적 표현을 창조하여, 그 도시의 문화적 표현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도시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 (3) 문화와 창의성을 공유하여,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삶이 교류를 통하여 심화되도록 한다.
- (4) 도시의 문화자원과 공간을 즐겨서, 모든 사람이 자극을 받고, 배우며, 새로워 지도록 한다.
- (5) 도시의 공동 문화 자원을 보호하여, 모든 사람이 그것들로부터 현재와 다가오는 미래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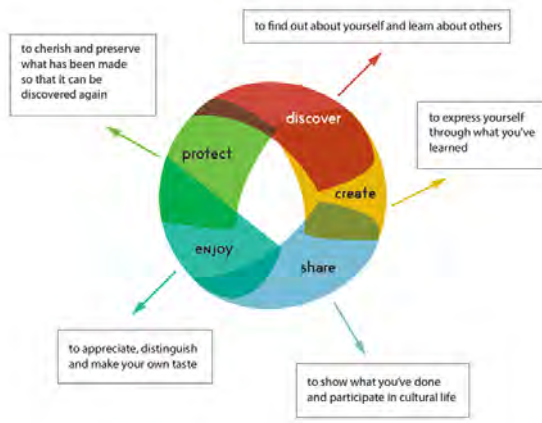


그림 5. 2020년 로마 헌장
출처: www.2020romecharter.org .

결론

한 도시가 UCCN의 지정을 받음으로써, 그 주민들은 그들의 지역 문화와 문화적 전통을 상기하게 된다. 주민들은 UCCN 회원 자격이 사회적 자본을 육성할 수 있는 방식을 기술하는 다양한 계획과 프로젝트를 통해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을 보존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활동적인 주민들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네트워크 참여의 조정 및 비용 문제가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목표 대상이 되는 네트워크와 연관된 문제이다. UCCN을 통해 유네스코는 도시들이 문화와 창의성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보다 쉽게 권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다른 잠재적인 이점은 UCCN 회원으로 지정된 도시가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유네스코 라벨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는 실제로 회원 도시가 UCCN 가입 신청서에 기술한 목표를 달성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배운다.

능력을 방해할 수도 있다. 네트워크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행정 업무는 많은 도시가 추구하는 브랜딩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의 역량 측면에서 단점이 될 수 있다.

문화적 풍요를 누리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는 장기적인 영향과 결과를 위한 장기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중 나선구조(Quintuple Helix) 이론에서,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기관, 시민 사회, 지역(문화) 생태계 간의 상호 작용은 문화-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Carayanis, et al. 2018). 시민 사회의 개입, 이해관계자의 참여, 포용적인 거버넌스, 파트너십을 통한 모범 사례, 경험 및 지식의 공유, 문화-주도 사회 통합 정책 및 ODA 프로그램은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을 구현한다. UCCN 문화정책의 브랜딩 뿐만 아니라 중간조직과 파트너십의 홍보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도시의 문화 자원과 공간을 향유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배우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창의성

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요소로 인식한 도시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Auerswald, Phil, and Lokesh Dani. 2018. "Economic Ecosystems." In *The New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edited by Gordon L. Clark, Maryann P. Feldman, Meric S. Gertler, and Dariusz Wojcik, 245–27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arayannis, Elias G., et al. 2018. "The ecosystem as helix: an exploratory Local Arts and Cultural Ecosystems: Focusing on the Role of the UCCN Program 18 theory-building study of regional co-opetitive entrepreneurial ecosystems as Quadruple/Quintuple Helix Innovation Models." *R&D Management* 48.1: 148–162.
- 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2. *Munhwa saengtaegye-reul tonghan jiyek munhwa hwalseonghwa jeollyak (Regional Cultural Activation Strategy through Cultural Ecosystem)*, Chungbuk Research Institute.
- Ivanova, Victoria, and Gary Zhexi Zhang. 2022. *Future Art Ecosystems: Art x Decentralised Tech*. London: Serpentine.
- Markusen, Ann, et al. 2011. *California's Arts and Cultural Ecology*. California: The James Irvine Foundation.
- McGill, Larry, et al. 2014. *A Portrait of the Cultural Ecosystem*. Foundation Center.
- Mulligan, Martin, and Pia Smith. 2011. *Art, Governance and the Turn to Community: Putting Art at the Heart of Local Government*. Globalism Research Centre, RMIT University.
- Nemeth, Agnes. 2016.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Digging Deeper into the Governance of the Mega-Event." *Territory, Politics, Governance* 4.1: 52–74.

- OECD. 2020. A Territorial Approach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ynthesis Report. OECD.
- Richards, Greg, and Lian Duif. 2018. Small Cities with Big Dreams: Creative Placemaking and Branding Strategies. New York: Routledge.
- Spencer, Herbert. 1857. Progress: Its Law and Cause . New York: J. Fitzgerald.
- UCLG. 2018. How UCLG Contributes towards the SDGs: Fostering Accomplishment of the 2030 Agenda from the Bottom up. [https://www. uclg. org/sites/default/files/uclg_y_los_sdg-web.pdf](https://www.uclg.org/sites/default/files/uclg_y_los_sdg-web.pdf).
- United Nations. 2017.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6 July 2017, Work of the Statistical Commission pertaining to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